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4월 26일 04시 29분





### 씨뿌리는 어인

아! 박화성  
당신은 외로운 새벽별  
어둠의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별 하나  
꽃다운 나이에 새벽길을 떠나는 나그네  
찬 서리 때운 바람 속에서도  
황량한 지평을 향하여  
뭇 한 자루로 꿈을 그려냈으니  
아! 그것은 우리의 자유. 영원한 자유!  
일제의 쇠사슬 아래서  
야위어만 가는 이 땅의 골짜기  
눈물고인 자리마다 무궁화가 피기를 갈구 했던 절망의  
시대에도  
가난과 무지와 증살이에서 벗어나자고

말과 글과 영혼으로 씨 냈던 진주같은 작품들  
아. 당신은 이세상 크기보다 더 큰 자유의 씨를 뿌린 선  
구자였소  
세월은 가도 역사는 흘러도  
진실과 사랑과 정의는 강줄기처럼 흐르니  
팔십평생 당신이 뿌린 문학의 씨앗은  
세세 연년 해송보다 푸르름을 더해가니  
유달산이 내려다보고  
영산강의 품에 안긴  
이 축복의 땅에 당신이 살아 계심에  
아. 당신은 이땅에 자유의 씨를 뿌리신  
아. 당신은 새벽길을 열어주신 선구자였소  
  
- 글 차범석 서기 이천사년 심이철 -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